

제 3 강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세계 I

※ 학습목표

아리스토텔레스의 합리적 철학세계를 이해한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

-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전의 모든 학문을 집대성한 지적 거인으로서 플라톤과 더불어 근대가 도래하기 이전 시대의 최고 학자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스로가 자신이 고대 학문의 정점(頂點)을 이룬다고 생각했고, 그런 관점에서 최초로 ‘철학사’를 썼다. 또 그는 처음으로 학문을 체계적으로 분류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학문 이름들도 모두 그에게서 유래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 비해서는 이론 학문에 더 관심이 많았고, 특히 자연철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에서도 생물학(특히 동물학)의 그의 주된 분야라 할 수 있다. 당시의 모든 학문을 집대성, 근대 이전 가장 합리적이고 방대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체계론의 원형적 모습을 제공**하였다. 거장의 관점에서 철학사를 해석하면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그만큼 편파적인 부분들이 있으나 그만큼 독특한 미덕 또한 존재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으로 학문을 분류**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 시대에는 ‘시’(파르메니데스)로, ‘대화편’(플라톤)으로, ‘산발적인 단편’ 등으로 철학을 했지만 그는 학문을 분류하고 세분화하여 ‘물리학, 경제학, 정치학, 시학, 윤리학’ 등 학문의 명칭을 붙였다. 당론세계를 처음으로 분류하고 정비하였다. 예비학을 논리학으로, 이론철학을 자연철학 및 형이상학으로, 실천철학을 윤리와 정치로, 기타 시학이나 수사학까지 학문세계를 조직화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적 사고를 통해 학문적 체계를 확립**해갔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철학은 넓은 의미의 문학이었고, 경험적 지식에 바탕을 두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자연 과학자였고 생물학-동물학-발생학(development) 등에 관심을 가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적 구체성과 합리적 연역체계의 조화**를 이룬다. 그는 철저히 경험에 입각한 구체적인 체계를 세워가면서도, 학문이란 엄밀하게 연역적이어야 하고 필연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았다. 오늘날 서구 문명을 지배하는 보편타당한 연역적 사고는 그리스인들의 발명품이다. 그의 사상은 경험에 충실하면서도 ‘진정한 학문은 형상을 탐구하는 것이다’라는 스승의 가르침과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관심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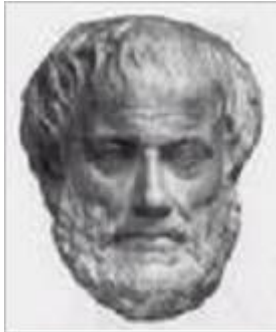
-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근방의 스타게이라에서 태어났다. 의사 가문에서 태어났기에 어릴 때부터 경험적 탐구의 분위기에 젖어 살았다. 그리고 18 세 때에 플라톤의 아카데메이아에 유학 오게 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그의 학문을 결정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카데메이아에서 20 년 동안 머물면서 학문을 연마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늘 토론의 대상이 되었으며, 플라톤에 충신했던 크세노크라테스와 비판적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늘 충돌했다. 플라톤 사후(347 년) 아리스토텔레스는 편력(遍歷) 생활에 들어가 소아시아의 앗소스, 레스보스 섬의 유틸레네 등을 떠돌아다녔다. 342 년에 알렉산드로스의 가정교사로 초빙 받아 필리포스의 궁정에 들어가게 된다. 알렉산드로스는 장성해서 대왕(大王)이 되었을 때 옛 스승을 위해 정복지(征服地)의 동식물들을 채집해 그에게 보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둘은 반란(反亂) 문제 때문에 멀어지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편력 시대에 많은 동물들을 관찰하게 되며, 그러한 관찰들이 그의 철학의 초석이 된다. 당시만 해도 동물 연구는 꺼림직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졌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등 동물들에서도 형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 점에서 플라톤과 전혀 다른 정향定向을 가지게 된다. 335 년 아테네로 돌아온 그는 크세노크라테스가 이끌던 아카데메이아에 맞서 뤼케이온(Lykeion)에 학원을 세우게 된다. 이 학파는 ‘소요학파逍遙學派’라 불리기도 했다.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광범위한 사회과학적 자료들을 수집하게 된다. 323 년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 아테네가 마케도니아에 반격을 시도할 때 대왕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숙청의 표적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시민들이 철학에 두 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에우보이아의 칼키스로 피신했다가 62 세에 그곳에서 영면永眠했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대한 저작들은 퀴케이온의 마지막 지도자인 안드로니코스 아프로디시아스에 의해 편집되었다. 이 저작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著作)'이 아니라 강의록들이고 우리가 현재 읽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이 강의록에서 나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대화편들로 쓰여졌다고 하나 대부분 분실되거나 파손되어 전해지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여러 가지로 수난을 겪기도 하면서 현대에 전해졌다. 그의 강의록들은 매우 난삽해 정돈이 어려웠으나 베르너 예거를 비롯한 현대 문헌학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 그 연대기가 정돈되었다. 이 문헌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록들이 빛을 보게 되었다.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하지 않는 희극론에 관한 가설이 바탕이 된 작품이다. 희극론은 웃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비극론과 비교되었다. 최근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이 발견되어 필사 작업중이다.

* 참고자료 1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BC 384~BC 322



* 참고자료 2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 지음, 이윤기 옮김, 열린책들

▲ 논리학의 체계화

-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을 크게 이론 학문과 실천 학문으로 나누었다.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작에 관한 학문이 추가되고, 또 예비 학문으로서 논리학이 추가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logic)이라는 학문을 처음으로 체계화해서 제시했다. **논리학은 개념, 판단/명제, 추론으로 이루어진 사유 체계**이다. 논리학을 제시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의 탄탄한 기초를 쌓았다. 『범주론』은 범주/개념, 『명제론』은 판단, 『분석론』 전후서(前後書)는 추론을 다루고 있으며, 『소피스테스 논박』은 오류추리를, 『변증론』은 변증법을 다루고 있다. 모두를 합해 '오르가논(Organon)'이라 부른다.

▲ 범주론(kategoria)

- 범주론範疇論은 '범주(kategoria)'를 다루고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존재론)의 실마리를 담고 있다. 어떤 사태를 논리적 흐름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이 말은 본래 법정용어이며 '홍범구주洪範九疇'에 입각해 '범주'로 번역되었다. 내용상 논리학일 뿐만 아니라 존재론이기도 하다. **범주론은 세계에 대한 총체적 분류**로서 한편으로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지나치게 구성적이기도 하다. 이 세계는 복잡하고 다양한데 그것을 잘라서 분류한다는 것은 대상에 폭력을 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 세계를 구성하는 10 개의 범주 : 우시아(ousia)

-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계를 구성하는 10 개의 범주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ousia’(존재=being)에 대한 이론이기도 하다. 존재에 있어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on kath'auto)”과 이것에 “부대해서 존재하는 것(on kata symbebekos)”이 구분된다. “자체로서(per se)” 존재하는 것과 “우연히(per accidens)” 존재하는 것의 이 구분은 그 후 서구 철학사에 지나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때로 ‘ousia’라는 말은 전자만을 가리키기도 해 주의를 요한다. 즉 전자는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후자는 이차적인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전자는 실재實在이고 후자는 그 실재에 부대하는 질, 양, 관계 등의 9 가지 범주이다.

예를 들어, ‘철수의 머리카락 색깔, 성향, 피부 촉감’ 등은 quality 에 해당한다.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관계’는 사라지듯이 이 관계(relation) 역시 부대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으로 관계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 실재(reality)와 개체

-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경우 ‘존재에 대한, 궁극적이면서 영원한 것’을 찾는 것이 그들을 무의식적으로 전제하던 시대적 흐름이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궁극적으로 대상을 넘어서는 이데아가 아니라, 철수나 뽀빠 등과 같은 각각의 개체를 찾고자 했다.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을 이어 아리스토텔레스도 “무엇이 실재實在인가?”라는 물음에 답하였는데, 그 구체적 답은 바로 개체들(tode ti)이다. 이것은 가장 상식적인 답이지만, 그리스 존재론사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답이기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일단 명사로 표현되는 모든 것이 실재들이다.

▲ 철학, 자연과학 담론의 성격

- 개체성은 증발되며 각각의 개체를 피상적으로 본다. 물리학에서 탁자나 뽀빠 같은 대상들이 모두 물질로 환원되어 물리학적으로 대상 그 자체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반면 문학, 역사, 철학(일부)에서 개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개체의 존재 ontology 론을 전제한다. 존재론은 다양한 ontology 들이 싸우는 장 field 이다. 양과 질의 문제, 관계성은 지속되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는 것이 곧 존재론이다.

▲ 실재가 변해 가는 우연적 양태 mode 들

- “부대해서 존재하는 것들”은 특정한 개체라는 실재를 전제할 때 그 실재가 변해 가는 양태(樣態)들이다. 소크라테스의 질들, 양들, 관계들 등이다. 이 범주들이 “우연적”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자연과학적 뉘앙스에서의 ‘우연’이 아니라 논리학-존재론적 뉘앙스에서의 “우발적(contingent)”이라는 뜻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개체들은 형상들(그는 ‘idea’라는 말보다 ‘eidos’라는 말을 더 선호한다)을 함축하고 있기에 성립한다. 즉 고정된 어떤 동일성(identity)을 함축하고 있기에 개체로서 성립한다. recognized(다시 알아보다). 동일성이 있기에 알아볼 수 있다. 그것이 개체의 형상이다. 반대로 개체들의 우발적 부대물들은 그 형상 동일성이 구현되어있는 질료에서 유래함. 철수의 겉모습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는 것은 그 안에 동일성(형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반해 피부색이 변하고, 머리모양이 변하는 것은 본질은 아니기에 질료에서 유래한다는 것이다. 반면 개체들의 우발적 부대물들은 그 형상/동일성이 구현(具顯)되어 있는 질료에서 유래한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유의 전체 구도를 잘 보여준다. **우연적 양태는 자연과학의 확률적 우연이 아닌 우발적 우연 contingent 의 의미**이다. 예를 들어 곱슬머리로 태어난 것, 얼굴 모양이 다른 것 등.

▲ 실존철학과의 차이

- 사르트르의 소설 ‘구토’에서 로캥탱은 마로니에 나무 뿌리를 보고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자기가 존재하는 물리적, 과학적 원인이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내가 왜 존재하는가, 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도 바로 contingent 한 것이다. 하지만 근대의 실존철학은 존재의 이유나 목적 같은 것이 없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과는 다르다.

* 참고자료 3

『구도』 장 폴 사르트르, 문예 출판사, 1999

▲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철학의 차이

- 플라톤은 우연한 사건을 넘어서는 데 초점을 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연한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분류하고 설명하려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physis 자체에 의미를 두고 부대물들의 변화를 형상 eidos 으로부터 이해하려 하였다.

▲ 변화와 운동의 구분

-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과 ‘변화’를 명확하게 분류했다. **변화(metabole)는 실재 자체의 생성과 소멸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어의 낱상과는 구분된다. 어머니의 죽음이나 집이 불타는 사건 등이 변화이다. **운동(kinesis)은 형상이 유지되는 한에서 변하는 것으로 i) 질적 변화와 ii) 양의 증감, iii) 공간 이동**으로 나뉜다. 질적 변화는 사물의 형상은 유지되나 질 quality 이 변하는 것을, 양의 증감은 철수의 키가 크는 것 등을, 공간이동은 돌맹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 등을 말한다. 오늘날 ‘movement’는 운동에, ‘motion’은 공간 이동에 해당한다(근대 기계론의 사유는 모든 운동을 공간 이동으로 환원시키고자 한 시도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질적 변화로서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는 근대 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비과학적일 수 있다.

▲ 형상과 질료

-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플라톤에게서 이어받은 형상들에 대한 관심과 운동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과학자적 관심이 혼재되어 있다. 형상들의 존재는 중요하다. 형상들이 존재하기에 이 세계는 단순한 물질의 흐름, 카오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동일성들이 존재하게 된다. 형상이 없다면, 무정형의 카오스 즉 질료만 존재할 것이다. 형상은 개체성과 조직의 원리를 부여한다. 뽀빠는 다른 강아지들과도 땅과도 또 다른 모든 것들과도 구분되는 특정한 하나의 동일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뽀빠의 형상이다. 우리가 ‘뽀빠’라는 이름=명사로 지시하는(refer) 것, 그것은 바로 뽀빠의 이 동일성이다. 그러나 뽀빠의 동일성은 예컨대 수학적 동일성(예컨대 반지름 3cm의 원)과 같은 추상적이고 영원한 동일성이 아니다. 뽀빠는 움직이고 쪼트며, 자식을 낳는다. 나이가 들면서 털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이빨이 빠지기도 한다. 어떤 사람을 보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좋은 주인을 만나 잘 살 수도 있고, 야박한 주인을 만나 보신탕집에 팔려갈 수도 있다. 즉 뽀빠는 그저 추상적이고 영원한 어떤 동일성이 아니라 무수한 질적 차이들을 띤 존재, 시간 속에서 변해 가는 존재, 무수한 관계 속에서 달라지는 존재이다. 요컨대 **뽀빠는 분명 동일성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 동일성은 동시에 시간과 운동/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 있는 동일성**이다. 바로 이것이 플라톤의 형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의 핵심적인 차이이다. 뽀빠의 이런 측면은 곧 뽀빠의 질료(hyle)에서 유래한다. 즉 뽀빠의 형상은 질료를 벗어나, 물질의 세계를 초월한 형상이 아니라 질료에 구현되어 있는, 질료와 분리될 수 없는 형상이다. 때문에 동일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변해 가는 것이다. 이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철학의 전체 구도가 잡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물들을 형상과 질료로 분석**해서 다루는 것이다.(‘질료형상설’)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개체들에 초점을 맞추되, 그것들을 형상적**

측면과 질료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체들에 유독 애정을 쏟았다. 수학적 형상들처럼 추상적이고 영원한 동일성을 갖춘 존재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형상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흙, 공기 등과 같은 질료적 존재들보다는 형상의 동일성과 질료의 운동을 함께 파악하면서 지적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생물학이야말로 그의 주된 분야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형상이 질료 속에서 조금씩 현실화되면서 마침내 하나의 개체가 태어나게 되는 과정의 연구 즉 발생학(embryology)이 그의 핵심 분야였다. 영원한 형상을 탐구하는 수학을 애호한 플라톤과 시간 속에 구현된 형상과 그것의 구체적 경험에 몰두한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에 이들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

▲ 가능태(dynamis)와 현실태(energeia)

- 이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개념쌍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가능태와 현실태이다. 플라톤의 형상은 시간을 배제하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은 시간을 머금는다. 변화의 와중에 잠겨 있는 형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이고(그 사물을 바로 그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 'to ti ên einai=essentia') 어떤 부분이 비본질적 부분인지(우발적 측면들)를 칼로 끊듯이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뽀빠의 동일성은 시간을 배제하는 동일성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형상은 추상적 본질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형상이 질료 속에 구현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형상은 이미 시간적 과정을 내포(함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형상은 단적으로, 순간적으로=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료와의 관계를 통해서 서서히 구현된다. **질료는 가능태 en(in)+ergein(ergon)**이다. 즉 그것은 특정한 형상을 띌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형상이 거기에 부여될 경우('부여'라는 말에 조심) 질료는 단순한 물질적 터에서 조금씩 특정한 동일성을 현실화해 간다. 바로 그렇게 질료를 단순히 질료 자체로서 머물게 하지 않고 특정하게 조직해 나가는('내부'에서) 것, 즉 가능태로서의 질료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형상이다. 이 때 형상은 현실태로서 기능한다. 즉 질료가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운동의 내적 원인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운동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해 그 형상=동일성의 현실적 모습이 완성될 때 그 **형상은 완성태(entelecheia)en+tel(telos, 목적)+echeia**에 도달한다. 즉 말 자체가 시사해 주듯이 그 목적(telos)에 이른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telos)

-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telos)은 현실과 거리를 둔 영원한 무엇이라기보다는 현실이 변해 가는 어떤 귀결점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 개념에는 당위나 이상의 뉘앙스 이전에 자연법칙의 뉘앙스가 깃들여 있다. 이것은 당위나 이상을 의미하는 플라톤 목적과는 중요한 차이를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런 형상, 즉 질료에 구현되어 자체의 목적으로 서서히 나아가면서 그 부대적 존재들을 통해서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형상은 곧 '영혼(psyché)'이기도 하다. 따라서 영혼은 신체와 분리해서는 결코 생각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 4 원인설 : 형상인, 질료인, 목적인, 운동인

- 지금까지 설명 과정에서 이미 형상, 질료, 목적 개념이 등장했거니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네 가지 원인'에는 마지막으로 운동인이 포함된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모두 한 개체에 대한 내재적 설명이었거니와 현실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타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변해 간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이런 운동과 변화를 설명하는 것 또한 하나의 핵심적인 작업을 이루는 것이다. 사물/개체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원인' i) 형상인 eidos ii) 질료인 hyle iii) 목적인 telos iv) 작용(운동)인 kinoun 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